

장성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돕는다

'점포경영 개선' 신설...인테리어비 등 사업비 최대 500만원 지원 임대료·대출이자 차액·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박차

장성군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 시책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은 기존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점포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인테리어, 조명 등 사업장 내부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노후된 점포의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지원 항목인 점포임대료는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0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장성군은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료를 연중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는 그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일자리경제실(061-390-7352)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한중(왼쪽 두번째) 장성군수가 전통시장을 찾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한 물건 값을 지불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강진군, 유튜브 영상 공모 6월 12일까지...대상 1천만원

강진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진군 유튜브 영상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강진군의 문화·역사·자연환경, 볼거리·즐거거리·먹거리를 다양한 계층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상 콘텐츠를 통해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청자 축제, 관광지, 맛집 등 강진군을 알릴 수 있는 소재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이나 팀을 구성해 브이로그, 패러디, 뮤직비디오 등 원하는 장르를 선택해 3분에서 5분 내외의 동영상상을 제작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2일까지다.

총 6개 작품이 선정되며 대상 1000만원 등 총 1천8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이 축제, 관광지, 맛집 등 강진군의 명소를 구석구석 둘러보고 즐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셋째 이상 1000만원'

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난임 시술비·진단 검진비 최대 30만원

나주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선8기 임신·출산지원 강화 '두 번째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셋째 이상 출생 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 진단 검진비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 '저출생 극복·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임신·

출산 지원 정책 문턱을 낮췄다.

기존 '6개월 거주조건'을 폐지하고 단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가구 소득 기준도 없앴다.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임신부(6개월·21주 이상) 가정에도 가사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가사돌봄서비스'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상향과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은 민선 8기 '임신·출산 2단계 지원 시책'이다.

나주시는 기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

째 이상 300만원으로 책정된 출산 장려금을 7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난임 문제를 파악하고 임신에 도움을 주는 '난임 진단검진비'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윤병대 시장은 "임신·출생은 주거·보육 여건은 물론 지역경제, 일자리, 교육, 정주환경, 보건·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직결된 지자체 경쟁력의 척도"라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이원일 셰프, 강진 맛을 부탁해"

'강진 한우 육회 떡볶이' 등 강진 대표 먹거리 개발 나서

강진군이 유명 요리사인 이원일씨와 손 잡고 대표 먹거리 개발에 나섰다.

강진원 군수는 최근 군청에서 이원일 셰프와 면담을 갖고 맛의 도시 강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메뉴 개발과 교육에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 셰프는 자신이 개발한 '강진 한우 육회 떡볶이'와 '강진 한우 표고 육전 덮밥'을 선보였다.

강진 한우 육회 떡볶이는 강진의 쌀귀리로 만든 떡볶이 위에 육회를 올려 먹는 음식으로 MZ세대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고안했다.

또 강진 한우 표고 육전 덮밥은 역시 강진의 특산물인 한우와 표고를 기본으로 치즈를 더해 오믈렛처럼 밥을 싸먹는 메뉴다.

강 군수는 "전국에서 최고인 남도음식 가운데서도 강진의 음식은 단연 으뜸"이라며 "강진의 맛을 MZ세대에 맞는 전문가의 레시피로 살려 히트작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셰프는 "강진의 식재료에 반했다"며 "새롭게 개발한 메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



강진원(왼쪽) 강진군수와 이원일 셰프가 강진군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도록 강진을 자주 찾겠다"고 회답했다.

이원일 셰프는 강 군수와 면담 이후 강진읍 사무소 여성회관 조리실에서 남도국밥, 국수면가, 청자골 종가집, 인달, 오르소, 코코모 등 6개 식당의 대표들이 참석해 가운데 본격적인 레시피 교육을 가졌다.

강진군의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강진읍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 엑스포공원의 밤
함평은 곤재료에 위치한 엑스포공원 일원에 색색의 조명이 불을 밝혀 낮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평엑스포공원에는 형형색색의 경관조명 12종 4424점, 야간경관조형물 31종이 설치됐다. <함평군 제공>



화순 출신 농협 임직원, 고향사랑기부 동참

화순 출신 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화순군과 NH농협은행 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고성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과 정재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김정수 동북농협 조합장, 김종명 농협화순군지부장 등 화순 출신 농협 임직원들은 이날 화순군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구복규 군수와 기부자들은 지난 14일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화순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육성보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구복규 군수는 "화순 출신 농협 임직원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성신 본부장 등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담양군 '민원서비스' 장관 표창

담양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민원 행정 전략, 민원 제도 운용, 국민신문고 민원, 고충 민원,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 19개 지표를 평가해 전국 상위 10% 이내 기관으로 선정됐다.

담양군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에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담양군, 4년 만에 '군민과의 대화'

23일까지 12개 읍·면 순회

이병노 담양군수가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 행보에 나섰다. <사진>

담양군은 지난 14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2주간의 일정으로 민선 8기 첫 군민과의 대화에 시동을 걸었다.

군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아예 취소하거나 권역별로 대체 실시돼 왔으며, 전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올해 균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 여론을 듣고 소통하며 군민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는 보다 많은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 질의와 더불어 읍·면별 불편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미리 받아 답변하는 방식을 더했다.

참석한 군민들은 일상에서 평소 겪었던 애로사항을 비롯, 주요 정책에 관해 묻고,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16일 고서면·가사문학면, 21일 창평면·대덕면, 22일 용면·월산면, 23일 수북면·대전면 순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청과 섬김의 원칙으로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며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해답'을 찾겠다"며 "민선8기의 실질적 원년인 올해 역점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 도시 건설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